

세계도시

2006. 9. 18 제151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독일 슈투트가르트市の 기후분석지도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 및 건축계획 관리

도시경영·경제

1. 운영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부활 (오사카)
2. 제4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02개 시설에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일본 아키타市)
3. 국제도시 런던을 하나로 묶는 '우리는 런던시민, 우리는 하나' 캠페인 전개 (런던)
4.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 개최 예정 (프랑스)
5. 시청에서 분쟁을 중재하는 민원 서비스 실시 (파리)
6.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민 경쟁 입찰제도 실시 (일본)
7. 인터넷 민원제를 통한 중점산업 지원 프로젝트 실시 (북경)

복지·문화

8. 생활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동경都 이타바시區)
9. 사회편입을 돕는 상담창구 증설 (파리)

도시환경

10.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 지침서 발표 (스코틀랜드)
11. 호주 최초의 태양열 시범도시(Solar City) 선정 (호주 노스애들레이드市)
12. 국립공원 내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친화형 화장실로 정비 계획 (일본)

도시교통

13. 쇼핑센터 이용 시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 시행 (런던)
14.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열차 '아멘다'(Amenda) 개통 (스웨덴)
15. 주민 간의 대면 대화와 교통량 감소에 대한 보고서 발표 (영국)
16. 시민 주차요금 할인을 공용주차장 2층까지 확대 실시 (파리)

도시계획·건설·주택

17. 농촌보호협회, 토지재활용에 대한 데이터 발표 (영국)
18. 설문조사 결과 어메니티(amenity)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

방재·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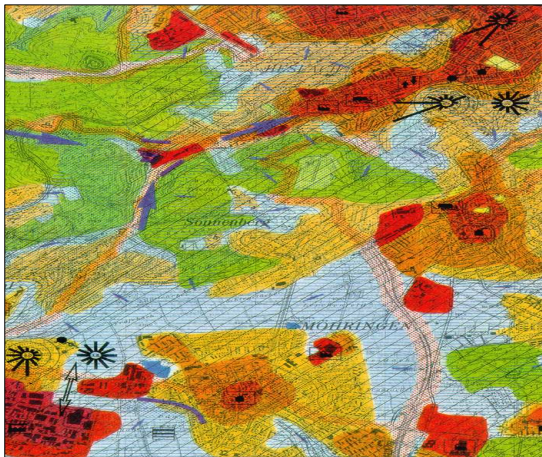
19. 市 중심지에 30곳의 응급피난처 건립 계획 (북경)

벤치마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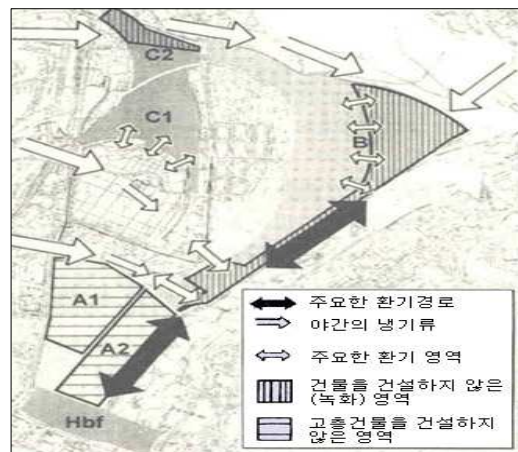
독일 슈투트가르트市的 기후분석지도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 및 건축계획 관리

<주요 내용>

세계적으로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독일 슈투트가르트市다. 슈투트가르트市는 북동부를 제외하고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있어, 평균 풍속이 0.8~3.1㎞/시간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바람 흐름이 느린 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공업도시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곤 했다. 이런 까닭에 슈투트가르트市는 종전 후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바람길을 도시 및 건축계획에 자연스럽게 반영했다.



슈투트가르트市 '기후분석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슈투트가르트 21)

<냉기의 영역, 지형의 특징>	<그림문자>
냉기침입영역: 공개지(프라이라트)에서 야간에 차갑고 신선한 공기의 산출	주거: 비교적 큰 주택에 의한 연소 배기
냉기가 모이는 영역: 상대적으로 깊은 지형의 경우 냉기의 축적, 냉기의 유도	교통: 비교적 큰 평면상에 광범위한 교통기관에 의한 배출
공기의 언(壔)(저녁): 건물, 덩, 숲(Waldriegel)에 의한 냉기후	중소공장: 비교적 큰 오염 배출
곡형단면의 좁아진 장소: 바람 흐름의 장애물	공장: 광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교적 큰 오염 배출
<공기의 교환>	지표골짜기 안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접지 역전에 의한 위험구역과 골짜기
사면류: 평면상에 광범위한 냉기 유출	역전의 해소: 열적인 흐름, 열섬 현상(heat island)
산곡풍계: 집중적인 냉기류	기류장 변화: 고층건축물, 사면에 의한 기류장 변화
공기 유도(오염부하 없음): 골짜기, 산의 안부(鞍部)	풍배도: 풍향의 빈도 분포
공기 유도(오염부하 없음): 골짜기, 산의 안부(鞍部)	대기오염의 풍배도: 풍향에 따른 대기부하량 지표

슈투트가르트市 기후분석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기호

특히 도시 외곽 산지에서 생성돼 도심으로 불어오는 찬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심 반대방향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을 조성했다. 청정지역에서 막힘 없이 불어오는 찬 공기는 고밀도 개발지역인 도심을 시원하게 할 뿐 아니라, 대기환경이 악화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찬 공기의 적절한 활용은 슈투트가르트市 도시개발 수준을 결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전제가 됐다. 그러나 찬 공기가 대기오염물질과 혼합돼 주거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찬 공기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후분석지도(Klima-Atlas)를 작성하고 있다.

<해설 및 평가>

기후분석지도는 자연과 환경 보전 관점에서 '풍토에 적응한 도시 조성(또는 순환형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기후정보를 이용해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지도이다. 기후분석지도의 목적은 대상 지역을 기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과정에서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에너지 절약과 같은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기후분석지도는 도시계획 담당자, 건축가, 지역주민, 연구자 등이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시 토지이용 계획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1/10,000~1/50,000 축적으로 표현한다. 독일에서는 대기오염 대책과 신선한 공기를 도시로 도입하는 방안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친환경적 도시계획 관리를 포함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기후, 대기오염과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리적 도시개발 요소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친환경적 토지이용 규제 및 유도를 위한 준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 공간의 환기능력을 향상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셋째,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녹지 대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대지와 도로의 점유율이 47%를 차지하는 고밀도형 대도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우면산, 불암산 등의 크고 작은 26개의 산이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으며, 북한산에서 관악산까지 많은 구릉과 산악이 산재해 토지의 기복이 심한 전형적인 분지형 도시지역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이 불량해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지형상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은 자연조건의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이 쉽지 않아 국지적으로 정체될 뿐 아니라, 고밀도 도심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부하가 많아 대기환경 개선의 이중고를 안고 있다. 서울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쉽게 정체되는 까닭에 바람이 대기오염 물질을 분산시키지 못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간접요인이 되고 있다. 여름 한낮에 아스팔트에서 데워진 열기가 밤까지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도시 열섬(열대야)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도시의 바람길 소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연유이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도시기후는 주거·업무·산업시설의 입지 및 배치, 토지 피복, 수목과 녹지율 변화, 에너지 소비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쾌적한 생활공간의 기본 단위 요소인 도시기후의 변화를 초래한다. 도시기후 변화는 부가적인 대기오염 발생 및 에너지 소비 등과 직결돼 시민 건강에 해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기후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자연기후 순환 시스템의 도시내부 유입방안, 둘째, 찬바람 발생지역의 파악과 보호, 셋째, 찬바람 통행구의 조성 및 찬바람 정체구간의 해소, 넷째, 녹지축 조성, 다섯째, 기후생태학적으로 유리한 건축물의 배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 현재까지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실제 사례는 아직 초보 단계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과정에서 최근 고층건물 신축사업에 의한 바람길 영향을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후분석지도의 제작 매뉴얼 작성을 준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서울 기후분석지도'가 제작될 예정이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향후 서울시 바람길 지도가 완성되면 지형, 건물 배치 및 개발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바람길 조성에 의해 대기오염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도시계획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거·상업지에서는 가능한 한 대규모 주택단지나 고층화보다는 주변지역의 여건이나 바람 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원활한 바람통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배치, 층수, 간격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 운영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부활 (오사카)

오사카市の 박물관, 온천 등 70개 시설의 운영 관리를 2006년 4월부터 민간기업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이 경합에 나서면서 민간만이 가능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수익창출을 도모했다. 미요시區 온천시설의 경우 건설비 100억 엔(약 840억 원)을 들여 1999년에 문을 열었지만 연간 목표 20만 명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4만 명 수준으로 매년 3000만 엔(약 2억 52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민간 위탁 이후 타이식 마사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종합건강센터'로 거듭났다.

해양박물관의 경우 에도시대의 운송선과 같은 크기의 거대한 외관으로 2000년 개업 당시 20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으나 현재는 10만 명 수준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위탁운영을 맡게 된 요시모토 흥업은 같은 계열사인 연예인 기획사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분장시켜 에도시대를 그대로 재현했다.

오사카만(灣)의 인공섬, 야구장, 체육관 등 4개 시설의 경우에는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미즈노'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스포츠 대회 개최 시 자사제품 홍보코너를 마련하고 스포츠교실을 열어 장래의 미즈노 팬을 만들게 하는 등 윈윈 전략을 통한 운영개혁을 추진했다. 나카노시마의 중앙공회당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산토리의 자회사인 산토리 퍼블리시티 서비스가 운영한다. 미술관 등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살려 문화사업 유치에 힘쓸 방침이다. (shitei.seesaa.net/article/18477195.html)

>>> 전문가 검토의견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경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해, 공공시설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공공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외환위기 이후 많이 논의됐다. 위의 사례에서는 부진했던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 이용객을 늘리고 수익도 늘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공공의 재정부담도 줄여 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은 공공시설 자체의 장기적 유지보수는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sch@sdi.re.kr))

2. 제4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02개 시설에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일본 아키타市)

일본 아키타(秋田)市の '제4행정개혁 대강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 센터나 스포츠시설 등 102개 시설에서 새롭게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 市 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의 재검토에도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 협동', '민간 활력의 도입', '사무·사업의 재점검' 등 7개의 테마로 총 115개 개혁항목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것은 '수익과 부담의 적정화'로 38개 항목이다. 무료 시설의 유료화를 포함해 오오모리산 동물원 등 유료 시설의 요금이나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市 홈페이지나 스포츠 시설에서의 광고 게재도 검토중이다.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102개 시설은 스포츠시설 25개, 문화시설 6개, 아동관 36개, 공민관 11개, 장례식장 2개 등이다. 일부 직영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수거 업무도 민간 위탁할 계획이다. (shitei.seesaa.net/article/18476849.html)

>>> 전문가 검토의견

지정관리자 제도는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큰 정부의 제도 피로와 비효율이 지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고, 행정개혁의 결과는 예산절감과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교연구를 한 후 서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3. 국제도시 런던을 하나로 묶는 '우리는 런던시민, 우리는 하나' 캠페인 전개 (런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런던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시민에게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한 '우리는 런던시민, 우리는 하나'(We are Londoners, We are One) 캠페인이 2006년 8월 21일 시작됐다. 이미 대표 구호인 'We are LondONERs' 스티커 및 포스터를 런던 시내 대중교통시설에 부착하거나 거리 등에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량용 스티커, 포스터 및 이미지 배너 등을 무료로 내려받거나 주문할 수 있게 했다. 2005년 7월 런던 테러 사건 이후 180여개국 출신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 런던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으로 진행된 '700만 런던시민, 하나의 런던'(Seven Million Londoners, One London) 캠페인은 런던시와 British Gas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www.london.gov.uk/onelondon)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967)

4.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 개최 예정 (프랑스)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 전국협의회(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Anacej)의 회의가 2006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라 빌레뜨(la Villette) 과학 공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기간은 입학철을 지나 청소년들이 지역 교육기관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서로



친숙해진 시기로 토론에 매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프랑스 전역의 8살에서 25살의 어린이 및 청소년 700여명이 참가해 3일 동안 프랑스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위치, 사회를 향한 청소년의 의견, 여러 교육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12살에서 25살까지의 청소년은 지역 청소년 의회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www.anacej.asso.fr)

5. 시청에서 분쟁을 중재하는 민원 서비스 실시 (파리)

파리시는 각종 분쟁을 중재해 해결해주는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청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분쟁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서비스와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준다. 중재인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파리시 주소로 편지보내기, 파리시청 전화, 법원민원창구에서 중재대표와의 만남을 예약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www.paris.fr)

6.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민 경쟁 입찰제도 실시 (일본)

‘시장화 테스트’로 불리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민 경쟁 입찰제도가 일본에서 실시된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운용에 따라서는 공공 서비스 전반의 재검토와 연결돼 전체의 공공서비스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민 경쟁 입찰은 현재 공무원이 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해 낙찰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2006년 9월에 정부는 ‘공공 서비스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고품질·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itei.seesaa.net/)

7. 인터넷 민원제를 통한 중점산업 지원 프로젝트 실시 (북경)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는 2004년 7월 6일부터 북경지구 하이테크산업과 현대식 제조업 등 중점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건의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공모는 거시경제 주관부문이 경제관리와 조정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당시 북경시에서 시행하는 투자의 80%가 시 중심부에 집중됐고, 55%가 부동산 산업에 집중됐다. 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중점산업에 대한 정책건의와 공개민원제도를 통해 북경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시 외곽으로 투자를 유도해 하이테크산업, 현대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재편을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원 공개모집은 국영기업, 민간기업, 외국기업, 북경시 소재 기업, 북경시에 등기가 된 기업, 기타 조직 등 어느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중점산업에는 정보통신, 바이오신약, 농업, 자동차부품 제조 등이 있다. 민원 대상산업은 국가 산업기술정책에 부합하며, 기술 집적도가 높고 혁신적이며, 산업화에 적합하고, 경제·사회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 2004년에는 소프트웨어, GPS 등 자동차 및 전자산업 위주로 중점지원산업이 선정됐다. 시 발전개혁위원회가 벤처 투자를 모집하고 자금 투입과 대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산업화를 지원했다. 시 발전개혁위원회는 ‘북경투자’(投資北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공모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한 정책 제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www.bjid.gov.cn/web/documents/200407/00020004_77211.shtml)

복지 · 문화

8. 생활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동경도 이타바시區)

일본에서 최초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동경도 이타바시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동경수도대학과 공동연구할 예정이다. 區 내의 수급자는 약 1만 2500명으로 구민 50명 당 1명 비율이며, 동경도 내에서는 아다치(足立)區 다음으로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區 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전적 측면뿐 아니라 외출기피증, 다중채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많아 사회복지사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區는 2005년에 구립 아카쓰카 복지사무소에서 취업과 고등학교 진학 등 10개 사안에 대해 상담기관 설립과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책

을 정리한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노숙자가 일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택 공급과 다중채무 해소 등 6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區에서는 복지사무소 3곳의 사회복지사 10명이, 대학에서는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에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했던 오카베 교수(사회복지학 전공) 등 10명이 참여한다. 이타바시區는 효율적인 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추진해 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9. 1)

>>> 전문가 검토의견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 탈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보호를, 자립의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이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공적 부조일 것이다. 이타바시區의 사업은 생활보호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빈곤 탈피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와 실험적인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9. 사회편입을 돕는 상담창구 증설 (파리)

파리 14, 15區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편입을 돕는 공간'(Insertion)이 2006년 9월 4일에 문을 열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내창구가 마련되어, 직업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RMI(최저생계유지비), ANPE(직업알선과 소개), 주택보조금과 노인 연금 등의 각종 사회 지원제도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정보망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민들은 문제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별로 조언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www.paris.fr)

도 시 환 경

10.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 지침서 발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쓰레기처리 관련 기준을 이행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지침서는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계획(Local Plan) 수립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프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전용플랜트 건설과 예전 산업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지침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과 함께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Planning, 2006. 8. 22)

11. 호주 최초의 태양열 시범도시(Solar City) 선정 (호주 노스애들레이드市)

호주 노스애들레이드市가 호주 최초로 태양열 시범도시(Solar City)로 선정됐다. 노스애들레이드市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청정에너지 도시로 변모하게 됐다. 태양열 도시 시범사업(Solar City Trial)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하고 낮은 오염물질의 배출기술 향상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연방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다. 앞으로 노스애들레이드市는 주택과 공공청사 및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 태양열 및 태양광시스템을 도입해 냉난방과 조명 등에 활용한다. 태양열 및 태양광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3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1인당 200호주달러(약 14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연방정부 총리실 보도자료, 2006. 8. 30)
(www.greenhouse.gov.au/solarcities/index.html)

12. 국립공원 내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친화형 화장실로 정비 계획 (일본)

일본 환경성 관동지방 환경사무국은 국립공원 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닛코 국립공원의 공중 화장실을 활용한 독특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배설물을 특수 필름으로 밀봉하고 이용자가 가지고 돌아가는 방식이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후지산의 경우 오두막의 화장실 분노를 등산철이 지난 후에 흘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했다. 환경성은 산 중턱에 바이오식 또는 소각식 등의 환경친화형 화장실 42기를 2006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장실 1기당 1~2억 원의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비 문제가 있어 이용자에게 1회당 17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다.

환경성이 이번에 실험하는 화장실은 이용 후 버튼을 누르면 배설물을 필름으로 밀봉하고 응고제를 넣어 소각처리할 수 있다. 급배수 설비나 정화조 공사가 불필요해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등산객이 밀봉 팩으로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화장실의 유지 관리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www.yomiuri.co.jp/e-japan/tochigi/news001.htm)

도 시 교 통

13. 쇼핑센터 이용 시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 시행 (런던)

런던市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들기 위해 쇼핑센터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자가용 이용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런던 남부 서레이 키(Surrey Quay)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 자전거 훈련'을 실비(약 1만 8000원)만 받고 실시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운전 능력과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 쇼핑센터 앞 광장에서 'Surrey Quays' Bike Magic Day' 행사를 열어 자전거를 타 보고 전문가가 조언하는 홍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 행사는 런던교통공사가 5000파운드(약 925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Cycle London Promotional Partnership(CLPP)이 주관한다.

14.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열차 ‘아멘다’ (Amenda) 개통 (스웨덴)

스웨덴의 바이오가스 회사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가스(biogas)를 이용한 열차 ‘아멘다’ (Amenda)를 개통했다. 이 열차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시속 1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열차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차량은 기존의 전동차와 비교할 때 가격 면에서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 경제적인 열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열차에 이용한 바이오가스는 죽은 소의 장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통해 얻으며 앞으로는 열차만이 아니라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www.rudi.net/node/9453)

15. 주민 간의 대면 대화와 교통량 감소에 대한 보고서 발표 (영국)

최근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대화와 다양한 교통정보 교환방법이 차량이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피터버러(Peterborough)市와 워체스터(Worcester)市 65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주민들 간의 대화와 정보교환, 市 차원의 정보제공으로 피터버러市에서는 차량이용이 13% 감소한 반면 도보는 21%, 자전거 이용률은 25%, 대중교통 이용률은 13% 증가했다. 워체스터市에서는 차량이용이 13% 감소한 반면 도보는 17%, 자전거 이용률은 36%, 대중교통 이용률은 22% 증가했다. 두 지역의 차량이용률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lanning, 2006. 8. 16)

16. 시민 주차요금 할인을 공용주차장 2층까지 확대 실시 (파리)

파리市는 파리 시민이 더욱 쉽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 2층까지 주차요금 할인을 확대 실시했다. 2006년 9월 1일부터 5개의 공용주차장에서 먼저 실시하고 9월 중에 나머지 22개의 공용주차장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평소 주민을 위한 우선 주차나 할인 정액권이 있었는데 추가로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파리市는 65개 공용주차장 지하의 3만 2000개 주차공간에 대해 30%의 할인 정액제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그 대상을 주차장 2층까지 확대했다.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22215&portlet_id=815)

17. 농촌보호협회, 토지재활용에 대한 데이터 발표 (영국)

영국 농촌보호협회는 도시와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과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이전적지나 버려진 토지의 재활용(land recycling)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주택 공급과 도시 및 농촌의 개발 계획에 있어,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녹지와 농촌지역의 훼손을 막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의 초기 단계에 개발 가능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했다. 농촌보호협회는 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현재 런던을 제외한 약 300개 지방정부 중 약 43개 지방정부가 토지재활용을 통해 녹지와 농촌지역의 훼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rudi.net/node/10025)

18. 설문조사 결과 어메니티(amenity)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

영국 자선서비스단체(Community Service Volunteers)는 영국인 46%가 녹지공간과 같은 어메니티(amenity)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25세에서 34세, 35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층이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1%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역의 우체국, 소매상과 같은 어메니티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고 11%는 역사 건축물이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55세 이상의 연령층은 우체국과 소매상이 사라지고 교통시설의 연계가 열악한 것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였다. (Planning, 2006. 8. 17)

한줄 뉴스

<동경>

- 도시마區, 이케부쿠로 연극제 행사의 일환으로 아라카와선(線)을 테마로 전철에서 연극 상영
- 분쿄區, 2006년 9월부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2세까지의 어린이 일인당 5000엔권(약 4만원권) '자녀양육 상품권' 지급

<북경>

- 중국정부,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근 7년간 북경 환경개선예산으로 939억 위안(약 11조 7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혀
- 2008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市 생활쓰레기 처리율 9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현재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1만 4700톤이지만 처리능력은 9530톤에 불과
- 市 교통위원회,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공공버스서비스 등급평가제 도입
- '2006년 품질의 달, 북경 품질선전 자문서비스의 날' 행사를 청상무역센터에서 열어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정보 제공

19. 市 중심지에 30곳의 응급피난처 건립 계획 (북경)

북경市는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 동안 매년 市 중심지역에 150만~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피난처를 20~30곳 건립할 예정이다. 각 區와 縣의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장차 6만~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5곳의 응급피난처 설치가 반드시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북경市는 돌발적인 위급사태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 규모와 위험도, 도시 인구의 공간분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區, 縣, 신도시, 도시 중심부 중점지구의 지진 및 기타 재난·재해 응급피난처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제10차 5개년 발전계획 기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중인 11곳의 응급피난처 설치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재 안전계획이다. 2008년 올림픽 전까지 북경市 중심상업지구, 올림픽촌, 올림픽공원, 각 올림픽 경기장과 연습장, 선수촌 등 중점지구에 응급피난처를 설치하게 된다. 2010년까지 대형 응급피난 시설이 모두 완성되며 이들은 市 공원, 區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응급피난 시설과 함께 이용될 예정이다.

(북경일보, 2006. 9. 1)

(www.beijing.gov.cn/sh/sms/sh/zxxx/t656911.htm)

한줄 뉴스

- 파리市,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 전문가 12명, 지역의회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파리시민 관찰기구 운영

<런던>

- 남부지역 주민들이 소음, 애완동물 위협, 쓰레기 문제 등을 유발하는 '도시 여우' 제거에 나서
- 런던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진할 특별팀 구성 착수
- 市 중심부에 새로운 역사보존지역 4곳 선정
 - 세인트 폴 성당지역(St. Paul Churchyard), 포스트 레인(Foster Lane), 리버풀 거리(Liverpool Street), 펜처치 거리역(Fenchurch Street Station) 선정